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2023 THEME

ALWAYS

be there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리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복의 근원 강림하사(찬28/새28장)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이석희 장로 2부/백영만 장로 3부/김태현 장로 4부/김에스터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축복(작곡 H. R. Evans)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스가라 1:7-17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1:1-2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Return & Rebuild(2) 스가라 강해 삶이 영망일 때 들을 말씀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31) 참 성전, 진짜 교회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평생에 가는 길(찬470/새413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었습니다(2023년 주제가)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새해 기초공사, 완성했습니다

New Year Foundation Work Completed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초는 땅 아래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아 간과할 수 있지만, 기초가 튼실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운지 장식은 주춧돌을 다진 후에 하는 일입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붕괴되는 아파트, 무너지는 다리 등 기초가 부실해서 일어나는 참사는 처절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기초의 중요성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역들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다지는 작업은 항상 신년 벽두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이상 엘새)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베델의 첫 만남도 엘새였습니다. 10년째 베델의 사역을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10대 행사 등 의미 있는 일도 많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엘새로 시작한 한 해는 기도의 열매로 가득가득했습니다. 그 누구에게 공로를 드릴 수 없음은 엘새 때 함께 부르짖고 시작한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작년에 부인할 수 없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신학강좌 때에도,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도, 우리는 금식하며 특별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았습니다. 행사를 하나 더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더욱 흔들림 없는 기도의 기초 위에 세우고 싶은 단순한 열망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의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담임목사로서 꼭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엘새와 함께 출발하는 새해는, 한 해를 세우는 건물의 기초 공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획하고 꿈꾸고 설레는 한 해를 그 어느 현란함이 아닌 기도의 반석 위에 세우고 싶은 소망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연중행사사이니까 특별한 생각 없이 하던 일 한다는 마음이었지만, 엘새의 은혜를 경험한 저로서는 오히려 엘새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 기다려지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결결하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기도의 외침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사역의 야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쉼 없이 타고 있다고 믿었던 기도의 불에 기름을 붓듯, 다시 활활 타오르는 영성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물을 받드는 기초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실력이 늙습니다. 기본기가 흔들리면 인생의 패전만 거듭할 뿐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하면 마귀와 싸워 백전백승입니다. 새해는 기도의 자리, 거기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Always be there!!

No matter how much you stress on the importance of strong foundation, it never becomes an exaggeration. Foundation can be easily overlooked because it is underground. However, no matter how good a building is, it is useless unless there is a strong foundation. Therefore, decorating a sky lounge comes after laying a foundational cornerstone. It's horrible and frustrating to hear time to time about collapsed apartment buildings and broken bridges from insufficient foundation. Importance of foundation is the same for church. Ministries of spiritual growth are not visible to our eyes. Sometimes we are easily fooled by splendor on the outside that is visible. However, the true value of our work of laying the foundation, that is not visible to the eyes, always shines on the eve of new year.

Each new year begin with Elijah Early Morning Prayer for our church. My introduction to Bethel Church was also during an Elijah Prayer. As I look back on my 10th year of Bethel ministry, there were many memorable and meaningful events, as shown in the Top 10 News. But I think it is the foundation of prayers that held them together. Each year that began with Elijah Prayer was filled with many fruits. We cannot recognize any one person for those works because we cried out together during Elijah Prayer and entrusted the year to God. The need of special prayer came to me last year with undeniable earnest and urgency. That is why we fasted and got on our knees on Special Early Morning Prayers before Theological Seminars event and selection of new lay leaders. This was not just to add another program. It was from a simple desire to lay foundation of prayers to keep our church from swaying. And, God heard our prayers. We give all glory to God for last year.

As a senior pastor, I would like to give you, my beloved congregation, these words. Elijah Prayer that begins the new year is the foundation work to build the year on. There is only one desire. That desire is that all of our exciting dreams for the new year will be built on foundation of prayers and not for some vain glare. In the beginning, the prayer event was carried out without much thought since it was an annual event. But I have experienced much grace at Elijah Prayer, this has now become the time that is much anticipated. My frustrated and anxious heart becomes filled with Holy Spirit as I shout out prayers and experience passion coming alive in me for the ministry. I believe that prayer lamp is always lit. Like pouring oil into a lamp, new year began with spiritual lamp of prayer lighting up with burning passion. Although prayers are not visible, it is the foundation to build on. We improve when we are faithful to basic skills. If we don't have strong basic skills, we will be defeated. We cannot see prayers. But like a building's foundation, when our basic skill of faith is strong, we can defeat Satan every time. In the new year, always be there in the place of prayer. Always be there!!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삶이 엉망일 때 들을 말씀

(속 1:7-17)

- 1.**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나요?(비교/ 1:1, 1:7)
- 2.** 12절 '여호와와 천사'가 안타까워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참고 구절을 읽으며 확인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11-12절, 참고/ 롬 8:34)
- 3.** 이스라엘이 처한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그 교훈을 나누어 봅시다.
- 1) _____ (14-15절)
- 2) _____ (16절, 참고/ 애 2:8, 겔 40:3)
- 3) _____ (17절, 참고/ 계 21:11, 15)
- 4.**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이루시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평강(peace)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참고/ 요 15:18-19, 요 20:19-22, 롬 16:20)

적용하기



인터뷰 - 2023년 신임 사역장로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네



김도석 장로

1. 임직 소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은 저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책임감과 엄중함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팀원들과 교인들을 섬기는 자세로 더욱 헌신하고, 말씀 안에서 본이 되는 종직자가 되도록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가족 사항 아내 김귀순 권사와 2녀(지예, 지수)

3. 맡겨진 사역 카페 사역

4.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장 5절)



김문경 장로

1. 임직 소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데, 기름 부으셔서 장로로 택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겸손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기도

로 간구하며 사역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 부탁 드립니다.

2. 가족 사항 김오옥 권사와 3남(지민, 지웅, 지운)

3. 맡겨진 사역 새가족 사역

4.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정광목 장로

1. 임직 소감 돌아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길도, 또 앞으로 걸어갈 길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단 한 가지 마음으로 임직을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몸 된 베델교회를 힘써 섬기겠습니다.

2. 가족 사항 아내 박성혜 권사와 2남(호진, 현진) 1녀(예진)

3. 맡겨진 사역 식당 사역

4.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장 8절)



오세영 장로

1. 임직 소감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연약한 죄인이라 자주 넘어지고 쓰러져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수향기 풍기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베델교회 장로로 부끄럽지 않은 집사 같은 장로, 장로 같은 장로로 겸손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2. 가족 사항 아내 오미숙 권사와 1남(지석) 1녀(소은)

3. 맡겨진 사역 MIT 사역

4.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하박국 3장 28절)



황세현 장로

1. 임직 소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베델교회 장로로 세워 주신 것은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임직 사관학교에서의 다짐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게 충성하겠습니다. 저를 낮추어 섬기는 자세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2. 가족 사항 아내 황준옥 권사와 3남(Andrew, Mark, Daniel)

3. 맡겨진 사역 금다식 (금요일 다음세대를 위한 식사 제공하는 사역)

4.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립보서 4장 6절)



55마일을 마다하지 않는 은혜

새해를 맞이하면서, 네 가정으로 이루어진 저희 셀을 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셀 이름은 카라입니다. 헬라이어 카라는 계속 지속되는 기쁨을 뜻한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 교제할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해진 이름입니다. 보통 셀식구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거리에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 셀은 55마일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버뱅크에서 오시는 소 집사님 내외분은 알바인으로 이사 오실 계획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오셔서 작년에 등록하신 가정입니다. 55마일을 마다하지 않고 현장예배에 오신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알바인에 이사 오셔서 교회의 훈련과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 노 권사님은 2021년 사역 권사로 섬기시며 교회 식

당 봉사를 1년 동안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언제나 기쁨으로 셀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세 번째, 김집사님 가정은 운영하시는 사무실이 LA에도 오픈하게 되어, 작년 가을에 알바인에서 플러튼으로 이사 하였습니다. 비록 교회에 오는 거리는 멀어졌지만, 변함없이 현장예배를 드리시며, 셀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하십니다.

네 번째, 저와 남편은 모든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셀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줌으로 셀모임을 갖고 있으며, 예배 후에 교회 카페에서 교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은 모두 다르지만, 구원받은 감격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



록 셀로 묶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때에도 함께 기도하며 버티며 이겨 나갈 수 있는 셀식구들이 계셔서 감당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큐티로 열며, 주일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부르시는 곳에 Always Be There 할 수 있는 우리 카라셀 그리고 베델의 모든 가정되시길 기도합니다.

김은혜 집사

새가족 사역

베델의 가족이 되는 축복



타주에서 알바인으로 이주하여 교회를 찾던 중 베델교회를 알게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큰 건물과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어리둥절한 저희 가족을 새

신자팀에서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셔서 저희 가족은 무사히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로운 찬양과, 김한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와 위로, 감사 그리고 결단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배와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손길들, 그리고 온 교인들의 큐티를 향한 열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베델의 한 식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대된 새가족 환영회에서는 처

음부터 끝까지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하신 손길이 느껴졌고, 그곳에서 저희 가족은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환영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새가족 환영회에서 목사님이 하였던 말씀처럼 새가족이 아닌 한가족으로 베델교회를 섬기는 베델의 식구가 되어 2023년을 맞이합니다. 베델교회의 식구가 되어 맞는 2023년 새해가 더 기대가 됩니다.

박지윤 성도



근 10-15년의 공백기를 넘어서 베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에 큰 교회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모르게 오는 어색

함, 그리고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었습니 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예배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왔고, 메세지가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첫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그 이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전히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며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프로그램과 환영회를 통해 베델교회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베델교회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 방법들을 알게되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는 웃음과 그리고 훈훈함이 가득했고, 그 속에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더 생기는 계기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차원재 성도

송구영신예배 스케치

큰 변화를 기대하며

한 해의 마지막 날, 이별을 아쉬워 하는 듯 부슬비가 내리더니 송구영신 예배를 보러 교회로 출발하려고 하니 장대비가 바뀌어 예배로 향하는 발걸음을 방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붕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니 교회가 아늑하게 느껴지며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정을 한 시간 반 남겨놓고 드리게 되는 송구영신 예배 시작 전, 예배당 스크린에 올려진 성경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 절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를 보는 순간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예감에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He will Make away 란 찬양을 부르며 불가능해 보여도 사막 중에 물길을 내시 듯, 없는길을 만들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은 "Final Destiny"란 제목으로 시편 73편 1-17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고 잘못된

초점을 바로잡아, 타협하던 신앙에서 벗어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Final Destiny)는 바로 복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받은 은혜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해도 진정한 은혜는 바로 복음이 능력이 되어 믿음이 회복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첫 발은 예배의 자리인 성소, 교회로 돌아오는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우리를 위협하여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대안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편리가 진정한 예배보다 우선시 되는 현실을 지적하시는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성찬식에서 지난 해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후 목회진의 합창을 통해 2023 베델 주제가 "거기에 있겠습니다"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제가 가사처럼 여전히 앞으로 "힘겨운 삶과 시험 가운데 낙심하여도" "주님 부르신 그곳에 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셨던 주님"과 함께 저도 다시 복음의 자리, 믿음의 길, 우리의 final destiny에 있겠노라고 마음에 되새기며 2023년 새해로 향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김혜영 권사

베델 선교-과달라하라

은혜로 제자 삼는 에스페란자(소망)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단기선교를 갔던 곳이 멕시코였습니다. 선교훈련을 받고, 최종 파송 지역을 결정을 하는데 저희는 멕시코가 아닌 동남아 중 한 나라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기도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 예전에 멕시코 갔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별로라고 그랬지? 그러면 네가 가서 뭔가를 제대로 한번 해볼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선교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달라하라는 멕시코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입

니다. 멕시코의 실리콘밸리로 IT계통의 미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외곽의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공장에서 일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치안이 좋지 못해 외국인이 사역하기 어렵고, 사역을 하더라도 오후 5시 이전에는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지만, 그때는 위험한 곳이라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소망교회로 교회이름을 정한 것은 이 사람들께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소망을 주셨기에 이 소망이 저희 교회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어린이들을 전도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는 부모들이 자기들을 위해서도 활동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김밥을 먹이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었지만, 아이들은 변화되는데 어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안식년을 가지며 만난 것이 가정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평신도를 세우려고 해도 성도들이 세워지다가도 다시 주저앉고, 잘 세워진 것 같은데 어느날 보면 다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어른들은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조지아 선교대회를 통해 보이지 않게 섬겨 주시고, 발로 뛰며 챙겨 주시는 봉사자들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사역지에서 다시 열심히 땀을 흘리게 해주시고, 선교지를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서로 의논하며 베델교회와 더욱 가깝게 된 것 같습니다.

허익현, 김영중 선교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살채플: 강수연 전도사
 예살채플: 조성현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안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2023 MOD (사역박람회)

베델교회는 2023년을 포스트 코로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편함과 편리함이 우선시 되었다면 금년부터는 예배와 비전이 우선시 되는 원년입니다. 2023년 베델의 표어처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곳, "거기에 늘 있겠습니다"의 마음을 품고 사역박람회(Ministry Opportunity Day 또는 MOD)를 통해 사역의 현장으로 베델의 성도님을 초청합니다. 올해에는 89개 사역의 프로젝트팀장이 위임되어 다시금 사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비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구원 사역을 펼쳐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부르신 그곳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3년간 멈춰있던 세상은 본래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다르게 주님의 일은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 주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애정이 생겨납니다. 성도 간의 깊은 교제는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베델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 그리고 아직 교회 공동체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며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번 MOD를 통해 베델의 사역에 동참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 거기에 있을 때입니다.

예배 후 사역팀에서 준비한 부스를 둘러보시고 섬기고 싶은 사역팀에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손들고 나아가 함께해 주십시오! Always be there!

- ▶ 일시: 1월 22일(주일) 오전 8시 15분-오후 12시 30분
- ▶ 장소: 베델교회 본당 앞 코트 야드
- ▶ 문의: 유형석 집사 (949)533-4132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월) |

1/15: ①부-이성준	②부-이여송	③부-이상원	④부-윤세희
1/22: ①부-고석민	②부-김교식	③부-임동익	④부-이주원
1/29: ①부-정현근	②부-송석원	③부-김도석	④부-허세훈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2월) |

1/14: 이원배 1/21: 이용준 1/28: 이종호 2/4: 이희정

강단꽃(1월) |

1/8: 김성희, 김인권, 윤주원 1/15: 광영지, 황은아 1/22: 임명우, 최호경 1/29: 김영신, 장효준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오세영(한 의사), 간호사-채수정

다음주 | 의사-이석완(심장내과), 간호사-채수정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베(옥소리), 장과장(주영매), 호세아(그사람),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성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배(배안),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1차 VIP 작정의 날** 오늘(8일)은 9월에 있을 새생명축제를 위한 '1차 VIP 작정의 날'입니다. 나누어 드린 VIP 작정카드를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출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VIP 작정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임동익 장로 (323)356-0521

◆ **베델 수요일예배** 주성필 목사님의 시리즈 "오늘 나를 비추는 사사기"라는 주제로 베델수요일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본당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송됩니다.

◆ **주차증 발급 안내/예배 후 즉시 출차** 베델 캠퍼스는 주차증이 있으신 성도님들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비전주차장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주차증 발급은 오늘(8일)부터 주차 사무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전주차장 셔틀 시간: 오전 5시 30분~오후 2시 30분

주차증 발급 대상: ①임신 8개월부터의 산모 ②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신 부모 ③80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분 ④건강상의 이유로 교회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분

◆ **베델 제자훈련 수료식** 지난 가을 학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 받은 양육반, 바이블클럽 16주, BAM훈련, 전도폭발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 기념 촬영이 있으니 많이 참석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1월 15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 **베델 기도학교 모집** 기도연합모임으로 기도굴리기를 시작하여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의 은혜를 이어 "베델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체계적인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Always Be There 비전에 따른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고자 합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기간: 1월 26일(목)~5월 18일(목), 16주

강의 날짜 및 장소: 1월 26일(목), 27일(금) 오후 6시 30분, 유년부실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1월 8일(주일)~22일(주일), 코트야드 또는 교회 홈페이지

회비/문의: \$20.00(책자와 식사 제공), 주용중 집사 (949)812-2906, prayer@bkc.org

◆ **은퇴 목사 조찬모임** 설날을 맞이하여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한 조찬 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시/장소/문의: 1월 21일(토) 오전 8시, 조이채플, 이명환 집사(949)702-7188

◆ **미션의 날** 올 한 해 단기 선교, 선교 헌금 및 선교 기도 작정의 시간을 갖게 되며, 아울러 2023년에 펼쳐질 베델의 단기 선교를 본당 앞 부스에서 선교지별로 소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날짜/문의: 1월 29일(주일), 김홍식 목사 (949)394-5320

◆ **사역팀 부서장 상견례 및 MOD(사역박람회)** 1월 14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2023년 팀장 상견례로 비전채플에서 모입니다. 더불어 MOD(사역박람회)가 1월 22일(주일) 각 예배 후, 코트야드에서 열리게 됩니다.(7면 참고)

◆ **1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1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정보미 집사, 조명환 권사, 최 신 권사, 허성준 집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 **교육부 엘리야 새벽기도회 개근상** 지난주 있었던 엘리야 새벽기도회에 개근한 학생들은 오늘 (8일) 각 부서에서 2023 Always Be There 후디 스웨터를 개근상으로 받습니다.

◆ **K-1, 유년부 골든벨 바이블 퀴즈** K-1과 유년부 부서에서 1월 15일(주일) 골든벨 바이블 퀴즈를 갖습니다. 지난 분기 동안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성경 말씀 내용을 복습하고 되새기는 유익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 **소망부 토요학교 봉사자 모집** 소망부 토요학교에서 봄학기 토요일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간/문의: 2월 4일(토)부터 12주간 매주 토요일,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교육학교 교역자 팀장 기도회** 2023년 교육부를 섬기시는 교역자와 팀장의 회의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의 소속된 교역자와 팀장님들은 오셔서 다음세대를 위한 계획과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일시/장소: 1월 8일(주일, 오늘) 오후 1시 30분, 유년부실

◆ **베델 한국학교 개강식 및 학부모 세미나** 봄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우리 자녀 이렇게 도와 주세요"라는 주제로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있으신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월 21일(토) 오전 10시 10분~11시 10분, 비전채플

강사: 김효신(서울 국제 고등학교 Seoul Global High School 교사)

문의: 윤주원 장로(949)892-9516, 윤미나 집사(310)913-3360

◆ **제32차 실행위원회 주행** 2023년 실행위원회 주행이 오늘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있겠다는 결단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2년 현금 결산보고서** Income Tax 보고서 첨부하실 2022년 현금 결산보고서가 1월 17일(화)부터 팩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행정실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성탄절 가족사진 수령** 성탄절에 찍었던 가족사진을 본당 앞, 포토 부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교역자 동정** 오늘부터 예산채플에 조성현 전도사가 부임하여 섬깁니다.

◆ **기도해 주세요** 오늘 3부 예배시에 이연호(Isaiah), 이연주(Joyce)의 단기 선교사 파송 기도가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제태 목사님(김추자 사모의 남편)께서 12월 31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이성준 성도님(이석배 집사의 부친, 이성희 집사의 시부)께서 1월 2일(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RETURN & REBUILD (2)

Word to Listen When Life is in Chaos (Zech 1:7-17)

1. How much time have passed from last week's passage to today's passage? (Compare: 1:1, 1:7)

Apply to Life



2. Sad question the 'angel of the Lord' is asking God in v.12 is similar to that of Jesus interceding for us. Confirm the truth that Jesus is interceding for us from reference verses. What comes to your mind?(vv.11-12, Ref: Ro 8:34)

3. Share your lessons as you summarize God's three answers to Israel's desperate situation.

1) _____ (vv.14-15)

2) _____ (v.16, Ref: Lam 2:8, Eze 40:3)

3) _____ (v.17, Ref: Rev 21:11,15)

4. Think of ways that God accomplishes peace in us. What efforts are we putting in to have that peace?(Ref: Jo 15:18-19, Jo 20:19-22. Ro 16:20)